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왕의 식사인 수라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먼저 수라의 재료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교수: 예전에는 조세를 물품으로도 냈었는데 그런 공납의 형태나 지방의 진귀한 토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진상의 형태로 마련했어요.

학생: 그렇군요. 그러면 공납이나 진상의 경로는 어땠나요?

교수: 중앙 부서를 통해 궁중으로 공납되거나 관찰사와 같은 지방 관료들을 통해 직접 궁중으로 진상되었죠. (옛 문헌을 가리키며) 이게 고종 29년에 함경도 관찰사가 왕에게 올린 진상품을 기록한 문서인 진상 단자예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럼 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나요?

교수: 궁중으로 간 식재료는 사옹원의 설리 내관에게 보내진 다음, 반감이 받아서 음식으로 만들어졌지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설리는 궁중 음식을 관리하던 내관이었고, 반감은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남자 요리사들의 수장이었죠. 설리가 관리한 식재료로 반감의 지휘 하에 음식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최고의 맛을 냈고,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겼죠. (사진을 보여 주며) 사진을 보니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학생: 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라의 종류와 구성은 어땠나요?

교수: 시간대에 따라 아침 식사인 조수라, 점심 식사인 주수라, 저녁 식사인 석수라가 있었죠. 또한 세끼 수라 이외에 드시는 간식, 조수라 전에 가볍게 드시는 쌀죽인 죽수라도 있죠. 한편 수라는 밥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기본 밑반찬으로 구성되었죠.

학생: 아, 그렇군요. 수라는 종류가 정말 다양했네요. 그런데 저는 수라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교수: 그렇지 않아요. 수라상을 한 번 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어려야 하죠. 이것은 왕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이 백성들의 수고와 정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생: 결국 수라에는 선정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군요.

교수: 그렇지요. 평소에 저는 왕의 식사인 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에게도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교수는 화제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주며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교수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생은 교수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생은 교수에게 질문을 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원: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에 따라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하기로 했지?

민지: 그럼 인터뷰 내용이 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니까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로 하면 되겠네. ①

시원: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교수님과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수라 재료의 마련 방법, 공납과 진상의 경로, 수라가 만들어진 과정, 수라의 종류와 구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수라의 의미를 서술하면 되겠어. ②

시원: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한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민지: 수라상에는 다양한 기본 밑반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 기본 밑반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기사에 추가했으면 좋겠어. ③

시원: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석준: 최고의 맛을 낸 수라와 그것이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실기로 하자. ④

시원: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수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교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신도록 하자. ⑤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처럼 예외를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시한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병세가 호전됐다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한 후에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지만, 거짓말의 결과가 유익함과 행복을 준다면 거짓말을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다면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도덕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도덕규범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도덕은 무너질 것입니다. 칸트는 「인류애를 위하여 거짓말할 권리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친구를 죽이려는 암살자가 쫓아와 친구가 집 안으로 달아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이제 찬성 측의 반론을 듣고, 이어서 반대 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측: 저도 칸트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해치려는 자가 쫓아와 친구의 행방을 묻는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친구를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암살자에게 쫓겨 위험에 처한 친구의 행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여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즉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②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의 정확성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③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중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논제이다.
- ④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⑤ 어떤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안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논제이다.

4. <보기>의 ㉠, ㉡을 활용하여 토론의 논거를 보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사탕을 약으로 위장하여 환자에게 먹게 했을 때, 병세가 호전되거나 유익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 의사가 환자를 위해 위약(偽藥)*을 투여한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되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한다.

* 위약: 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도록 하려고 주는 가짜 약.

- ①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은 상호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② 찬성 측: 결과가 유익하다면 수단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③ 반대 측: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④ 반대 측: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을 지켜야만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⑤ 반대 측: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5. 위 토론을 들은 청중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듣기 전략	청중의 반응
토론 내용에 공감하며 듣는다.	○ 찬성 측의 주장처럼 나도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 ①
논지의 일관성을 파악하며 듣는다.	○ 찬성 측은 반론에서 상대방의 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어. ... ②
토론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듣는다.	○ 반대 측은 논거를 찾기 위해 학자의 논문도 읽어 보며 준비했어. ③
사회자의 역할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듣는다.	○ 사회자는 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양측에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어. ... ④
토론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며 듣는다.	○ 반대 측 주장을 들으니, 지금까지 좋게만 생각했던 선의의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⑤

[6~8] 다음은 '인문학 발전 방안'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개요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개요

- 서론: 현황 제시 ㉠
- 본론
 - 1. 현황이 지닌 문제 ㉡
 - 2.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
 - 사회적 차원 ㉢
 - 개인적 차원 ㉣
 - 3. 인문학 발전 방안
 - 사회적 차원
 - 개인적 차원
- 결론: 인문학 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

□ 학생이 작성한 초고

최근에 대학가를 비롯해서 지역의 문화 센터 등에서 역사와 철학 관련 교양 강연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관련 서적이 작년 대비 20% 이상 판매가 늘어나는 등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 열풍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으로는 그 답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직 인문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인문학 전공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 교육에서 취업이나 입시를 중시하여 실질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람들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문학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인문학이 삶의 지혜를 주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시작 단계에서 사례를 들어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현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이해를 높이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컴퓨터 전공자들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고등학교 교과에 철학 과목을 두어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일보(신문 기사 중에서) -

(나) 생존이나 생계 문제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인문학을 단순히 처세의 도구로 여기거나 현실과 무관한 학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삶의 굴곡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 대학 인문학 강연의 일부 -

<조 건>

- (가)에 드러난 시사점을 찾아 ㉠을 구체화할 것.
- (나)로부터 핵심 생각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대중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따라서 정부는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④ 따라서 정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인문학을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 ⑤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의 창조력을 지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원 선발 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책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해 보자.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글을 시작하고,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밝히며,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 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거울의 특징
- 성찰이 필요한 이유
-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 ① 사람은 저마다 다른 능력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거울은 깨끗해야 사물을 왜곡 없이 비출 수 있다. 바른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거울은 사물의 모습을 반대로 비추고 있다. 나도 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 ④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자신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 나를 점검하여 나침반처럼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⑤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황금빛 가을 들녘처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 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달 전 한 친구가 내가 해 준 충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도 그 친구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고, 그 이후 서로 어색해지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나에게 상담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

책 속에서 글쓴이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꽃나무를 심어 향기를 선물하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가시나무를 심어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당시에 내가 한 말이 친구에게 향기가 아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이 책에 제시된 공감의 대화, 긍정의 대화 방법을 익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습관화하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를 통해 부정 표현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
나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

ㄴ.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못한다}.

ㄷ. 그녀를 만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ㄹ. 그는 결코 그 일을 {*했다/안 했다}.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했다/안 했다}.

ㅁ. 교실이 {안/*못} 깨끗하다.

*비문법적 표현.

- ① ㄱ을 보니,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군.
- ② ㄴ을 보니, 행동 주체의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문'만 쓸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보조 용언 '말다'를 활용하여 사용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어떤 부사는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형용사를 부정할 때에는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부정 표현을 나타낼 수 없군.

12.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번(番)

I ㉠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번을 서다.

II 의존명사
① 일의 ㉡을/를 나타내는 말. 『둘째 번.
②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여러 번.

한-번(-番)

I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II 부사
①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한번 해 보다. / 한번 먹어 보다.
② 기회 있는 어떤 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 ㉢ / 한번 찾아볼게요.
③ ((㉣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춤 한번 잘 춘다. / 공 한번 잘 찬다.

- ① ㉠, ㉡에 들어갈 말은 모두 ‘명사’이겠군.
- ② ㉡에 들어갈 말은 ‘차례’이겠군.
- ③ ㉢에는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를 넣을 수 있겠군.
- ④ ‘한-번 I’과 달리 ‘한-번 II’는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없겠군.
- ⑤ ‘난 제주도에 한 번 가 봤어.’에서 ‘번’은 ‘번 II-②’의 뜻으로 쓰였겠군.

13. 다음은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두 친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꽃잎, 헛웃음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따님(딸-님),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손가락(술~), 사흘날(사흘~)

우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꽃잎’은 [꼰닙]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합성어는 원형을 밝혀 적기에 ‘꽃잎’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가 또 있을까?

정인: ㉠ ‘칼날’을 [칼랄]이라고 발음하지만 ‘칼날’로 표기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지. 그런데 ‘소나무’는 합성어인데 왜 ‘술나무’라고 적지 않을까?

우진: ㉡ ‘술’의 끝소리가 ‘ㄹ’이고 ‘나무’와 어울릴 때 ‘ㄹ’이 탈락하여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지. ‘ㄹ’이 탈락하는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

정인: 다른 예로는 ‘마소, 아드님’이 있어.

우진: 그래, 그런데 ‘마소’와 ‘아드님’은 단어 형성법이 다르네.

정인: ㉢ ‘마소’는 ‘말’과 ‘소’가 합성어를 이루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고, ㉣ ‘아드님’은 파생어로 명사 ‘아들’과 접미사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것이지.

우진: 그런데, ‘손가락’은 ‘술’과 ‘가락’이 합성된 말인데 왜 ‘손가락’이라고 적을까?

정인: ㉤ 본래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도록 한 것이지. ‘여닫이’도 이에 해당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① ㉠에 따르면 ‘꽃다발이 예쁘다.’에서 ‘꽃다발’의 표준 발음은 [꼰따발]이겠군.
- ② ㉡에 따르면 ‘아기를 꼭 껴안고 갔다.’에서 ‘껴안고’의 표준 발음은 [껴안꼬]이겠군.
- ③ ㉢에 따르면 ‘감기를 옮기다.’에서 ‘옮기다’의 표준 발음은 [옴기다]이겠군.
- ④ ㉣에 따르면 ‘여기 외엔 갈 데가 없다.’에서 ‘갈 데가’의 표준 발음은 [갈떼가]이겠군.
- ⑤ ㉤에 따르면 ‘사랑할수록 참아야지.’에서 ‘사랑할수록’의 표준 발음은 [사랑할수록]이겠군.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그는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하고 만다.
 → 그는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 만다. ①
- 활용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②
- 불필요한 어휘가 중복된 경우
 예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다. ③
- 시간 표현이 잘못된 경우
 예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습니다.
 →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④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지나치게 생략된 경우
 예 인사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
 → 인사 발령이 나서 급히 가게 되었다. 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중세 국어의 '-습-/습-/습-'은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다.</p>
<p>학습 자료</p>	<p>[중세 국어] 聖子를 내①시니②이다 [현대 국어] (하늘이) 聖子(성자)를 내셨습니다.</p> <p>[중세 국어] 世尊尊존人 安한否불 문③잡고 [현대 국어] 世尊(세존)의 安否(안부)를 여쭙고</p> <p>[중세 국어] ④진지 오를 제 반드시 [현대 국어] 진지 올릴 때 반드시</p>
<p>학습 활동</p>	<p>①~④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_____ [가] _____)</p>

- ① ①: 주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②: 상대를 높이는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③: 객체를 높이는 '-잡-'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④: '밥'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①+②: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조주의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해석할 때 각각의 ㉠요소들 자체보다는 그 요소들이 기능적 연관을 이루는 하나의 구조를 우위에 두고 파악하려는 철학의 한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언어를 연구하여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인물이 바로 소쉬르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그 사회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며 언어의 의미는 구조에 의해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발화 주체의 모든 생각과 언어 사용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들은 그 발화 주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만약 음운 체계나 문법 체계 등 사회의 언어 규제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다양한 규제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소쉬르는 이런 규제를 랑그(langue)로 설명하였는데, 랑그란 언어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는 약속이며 동시에 개인적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체계를 말한다. 소쉬르의 이러한 이론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사람이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이다.

바르트는 언어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랑그 이외에 스틸(style)이 있다고 말하였다. 스틸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 감각으로, 이야기할 때의 속도나 리듬감, 음감, 운율, 호흡 등을 말하며, 글에서는 문자 형태로의 인상이나 비유, 문장의 호흡 등을 말한다. 그는 스틸이 개인의 무의식적 선호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개인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바르트는 또 하나의 규제인 에크리튀르(écriture)라는 새로운 개념을 밝혔는데, 이는 글을 쓰는 방법 또는 어법을 의미한다. 바르트는 이것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에크리튀르가 랑그나 스틸과 다른 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틸이 개인의 무의식적 선호에 ㉣근거한 것이라면, 에크리튀르는 집단적으로 선택되고 실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글쓰기에서 1인칭 표현을 '나는'에서 '제가'로 바꾸었다. 그 이후 그 학생의 글쓰기는 좀 더 점잖아지고 그 학생의 글에는 어딘가 ㉤격식을 갖춘 사람들의 말투와 태도들이 스미게 된다. 그 학생은 자신도 모르게 '제가'를 사용하는 점잖은 사람들의 습관을 지니고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 학생이 어떤 지식인 집단의 에크리튀르를 선택하고 그에 익숙해지면 그 집단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언어와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르트는 에크리튀르가 광범위하게 쓰일 경우 특정한 사고를 유발하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에크리튀르가 사회적 차원의 어법으로 확대되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이데올로기나 사고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틸은 개인의 언어 습관을 규제할 수 없다.
- ② 소쉬르는 바르트의 언어관에 영향을 주었다.
- ③ 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 ④ 랑그는 개인적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체계이다.
- ⑤ 구조주의는 사회 요소 간의 기능적 연관을 이루는 구조를 중시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소쉬르'와 '바르트'의 공통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을 수 없다.
- ② 언어의 가치는 개인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 ③ 언어에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
- ④ 언어는 연속되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나타낸다.
- ⑤ 언어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말의 양상이 동일하다.

19. 윗글의 '바르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씨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기자가 되었다. 기자가 된 그는 기자 집단이 쓰는 국어 어법에 맞는 정확한 글쓰기, 육하원칙에 따른 글쓰기에 충실하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긴 호흡의 문장으로 일기를 썼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일기를 보고, 이전과 달리 자신이 일기를 기사문처럼 논리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 ① A씨의 글쓰기는 언어 공동체가 공유한 약속의 규제를 받았겠군.
- ② A씨가 일기를 긴 호흡의 문장으로 썼던 것은 무의식적 선호에 의한 것이겠군.
- ③ A씨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은 기자 집단의 에크리튀르를 선택해서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겠군.
- ④ A씨가 일기를 의식적으로 기사문처럼 쓴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겠군.
- ⑤ 만약 A씨의 논리적 글쓰기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용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겠군.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 ②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③ ㉢: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 ④ ㉣: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됨.
- ⑤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 정함.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여러 개의 제품 중 본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때 소비자는 제품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맥락 효과가 있는데, 맥락 효과의 대표적 유형에는 유인 효과와 타협 효과가 있다.

[A] 유인 효과란 기존에 두 개의 경쟁하는 제품이 있을 때, 새로운 제품의 추가로 인해 기존 제품 가운데 하나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다른 하나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컴퓨터 A와 B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가격과 처리 속도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가격 면에서는 A가 저렴하여 우월하고, 처리 속도 면에서는 B가 빨라 우월하다. 이런 경우 두 제품은 상충 관계에 있다고 하며, 소비자는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B보다 가격과 처리 속도 면에서 열등한 C를 추가하게 되면 B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경쟁하던 A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유인 효과이다. 여기에서 C는 유인 대안이라 하고, 유인 대안이 추가되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A는 경쟁 대안, 유인 대안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B는 표적 대안이라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유인 대안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표적 대안과 경쟁 대안과의 가격 차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 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B를 선택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져 자신의 선택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진다.

타협 효과는 시장에 두 가지 제품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 번째 제품이 추가될 때, 속성이 중간 수준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면서 처리 속도가 우수한 컴퓨터와 가격이 저렴하면서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컴퓨터가 있을 때, 중간 정도의 가격과 처리 속도를 지닌 컴퓨터가 등장하면 중간 수준인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진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비자의 성향에 기인한다. ㉠소비자들은 대안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때 보통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의 중간 대안을 선택하여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맥락 효과는 이처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변화 현상을 상황 맥락과 연관 지음으로써 소비 심리의 양상을 경제학적으로 밝혀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분석하는 마케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1. 윗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맥락 효과의 유형
- ② 유인 효과의 개념
- ③ 유인 효과의 예시
- ④ 타협 효과의 한계
- ⑤ 맥락 효과의 의의

2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여 에어컨을 선택한다. 시장에 에어컨 ㉠과 ㉡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자사 에어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를 출시하였다.

구분	에어컨	㉠	㉡	㉢
제품	품질(점)	90	80	88
속성	가격(만 원)	22	17	30
선택 비율	최초	48%	52%	
	㉢ 추가	74%	22%	4%

단, 에어컨의 품질은 100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품질과 가격 이외의 다른 속성은 고려하지 않음. 또한 선택 비율이 높아지면 시장점유율이 상승한다고 가정함.

- ① ㉢가 출시되기 전, ㉠과 ㉡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상충 관계이었겠군.
- ② ㉢는 시장에서 유인 대안의 역할을 하여 ㉠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냈군.
- ③ ㉢의 출시로 ㉡의 선택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는 표적 대안에 해당하겠군.
- ④ ㉢의 출시로 ㉠과 ㉡ 간의 가격 차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 소비자들이 있었겠군.
- ⑤ ㉢가 시장에 추가로 출시되었을 때, ㉡를 선택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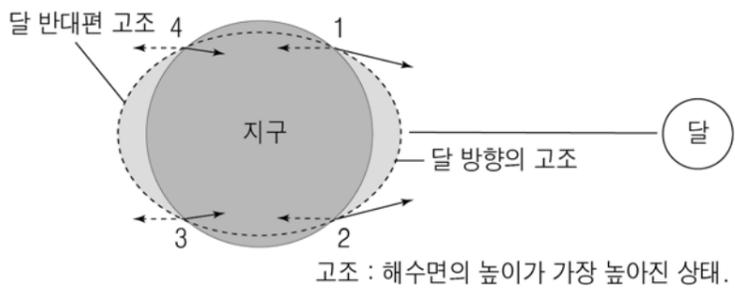
23. ㉣을 이용한 기업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의류 회사에서 유행이 지난 의류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정가의 50%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② 자사 과자의 시장점유율을 경쟁 회사보다 높이기 위해 인기 캐릭터 스티커를 넣어 판매하는 경우
- ③ 고기능-고가 카메라를 출시하여 저기능-저가 카메라에 밀려 팔리지 않던 자사 제품을 중기능-중가로 만드는 경우
- ④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향이 독특하면서도 질이 좋은 원료로 만든 커피를 판매하여 고급 커피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 ⑤ 음료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이온 음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제품 광고에 유명 영화배우를 광고 모델로 출연시키는 경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소개할 때 종종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다. 여기서 ‘조석 간만의 차’는 무엇을 의미할까? ‘조석’은 하루 동안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썰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 밀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는 ‘만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는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두 번씩 일어난다. ‘조석 간만의 차’란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하루 동안의 해수면 높낮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흔히 달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석’은 기조력에 의한 것이다. 기조력은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 원심력이 합해진 힘을 말한다.



그림에서 지점 1, 2, 3, 4의 점선 화살표는 지구의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을 보여 주고, 달 쪽으로 향하고 있는 실선 화살표는 달의 인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의 원심력은 달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의 주위를 지구가 회전 운동하여 생기는 힘이다. 원심력은 모든 측정 지점에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 그런데 달의 인력은 달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크기와 방향이 다르다. 또한, 달의 위상*에 따라 지구 내에서 작용하는 기조력은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1, 2 지점 사이에서는 달에 가까워 인력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곳의 해수가 그림처럼 달 쪽으로 끌려간다. 3, 4 지점 사이에서는 인력보다는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해수는 달 반대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기조력은 해수면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조석에는 달뿐만 아니라 태양도 영향을 미친다. 기조력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이 천체와 지구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갖지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태양의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달의 위상이 삭과 망일 때, 태양과 달은 일렬로 놓이게 되고 기조력이 가장 강해진다. 이때 조석 간만의 차는 최대가 되고, 이때를 ‘사리’라고 한다. 그런데 달의 위상이 상현과 하현일 때, 달과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직각에 놓이게 된다. 이때 태양에 의한 기조력은 달에 의한 기조력에 영향을 주어 그 힘을 작아지게 한다. 그 결과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게 되는데 이때를 ‘조금’이라 한다. 조금과 사리는 매월 두 번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석의 변화는 조류의 빠르기와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 조류의 빠르기는 조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조석 간만의 차가 클수록 조류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만조와 간조 시에는 그 흐름의 방향이 정반대이다.

* 공통 질량 중심: 두 행성이 서로의 중력장 안에 있어 계를 형성할 때, 한 점에 대해서 공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점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함.
* 위상: 위치에 따른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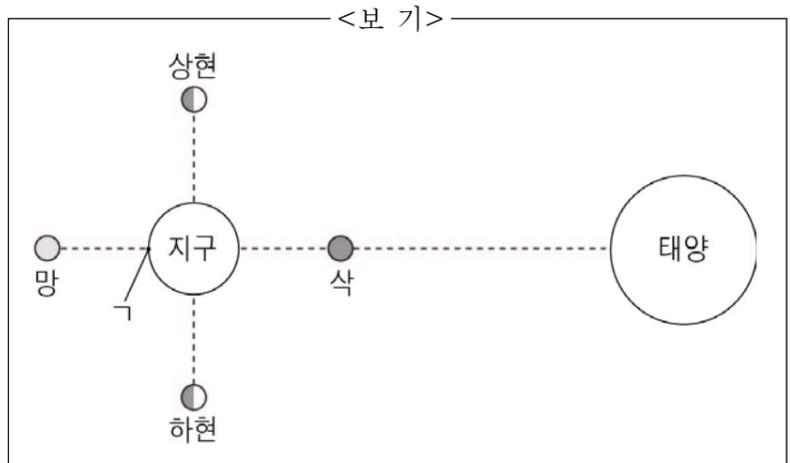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관련한 가설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발생 이유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발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구조적 특징을 유사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금은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 중 가장 낮을 때를 말한다.
- ② 지구에 작용하는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크다.
- ③ 달에 의한 기조력은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나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④ 조석은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가장 클 때를 의미한다.
- 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기조력에 의한 조류의 방향이 하루에 한 번만 육지로 향하게 된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달의 위상이 삭일 때, ㄱ지점에는 지구의 원심력이 달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겠군.
- ②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조석 간만의 차는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보다 크겠군.
- ③ 달의 위상이 삭이나 망일 때, 해수의 조류 속도는 한 달 중 가장 빠르겠군.
- ④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 조석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력은 달의 위상이 삭일 때보다 약해지겠군.
- ⑤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석 간만의 차는 최대가 되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미지란 무엇인가? 근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감각에 의해 지각하여 실제 세계를 구성하듯 이미지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실 세계는 인간에 의해 지각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실제 세계는 이러한 현실 세계를 인간의 지각에 의해 파악한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지는 감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게 지각된 모사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며 실제 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미지 이론’을 통해 상상 세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 드러냈다.

사르트르는 “㉡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 두 세계는 지각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지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하고 상상에 의해 이미지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 뜻한다. 결국 사르트르는 현실 세계가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로 나누어지며 이 둘이 동시에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이전까지 실제 세계에 속한 영역이자 열등한 복사물 정도로 ㉣ 여겨져 왔던 이미지를 실제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상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의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사르트르에 의해 실제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는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각에 의해 인식된 실제 세계는 세부적 특성이 파악될 때마다 변화하는 것에 비해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혹은 우리가 의도한 만큼만 구성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상을 비추는 조명의 색이 ㉤ 달라지면 실제 세계에서 지각되는 색채는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미지는 조명의 색이 달라지더라도 상상 세계에서 항상 같은 색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는 지각에 의해 파악되는 실제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상상 세계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작년에 외국으로 떠난 친구에 대해 상상할 때, 그와 함께 하던 빈 방을 보며 그의 부재라는 실제 세계는 사라지고, 상상 세계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만 떠오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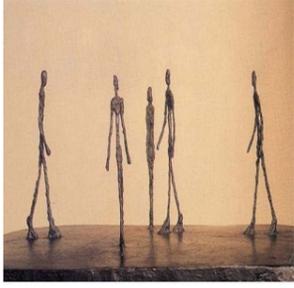
이러한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본다면, 예술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실제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고전적인 조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술가는 자신이 지각한 그대로를 완벽하게 표현하려 ㉥ 애쓰지만 실제 세계에서 인식되는 대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지각에 의한 재현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각을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하면 의도한 만큼 작품을 변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예술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변화하는 실제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예술을 대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 ②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가 대상을 온전하게 지각한 것이 아니라 모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③ 근대 철학자들은 실제 세계와 이미지 모두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사르트르는 이미지가 인식된 그 순간부터 이미지를 온전한 전체로 보았다.
- ⑤ 사르트르와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대상의 인식 주체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28. 윗글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인간을 단순화하여 인간의 형상을 양상한 몰골로 드러냈다. 또한 광장에서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대상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코메티, 「도시 광장」

- ① 작가는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했겠군.
- ② 작가는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변화하는 실제 세계를 지각하려고 고민했겠군.
- ③ 작가가 인간을 단순화하여 조각한 것은 현실 세계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을 통해 이미지로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 ④ 작가가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걷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나타나겠군.
- ⑤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전달하는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작가가 의도한 만큼만 이미지를 구성했기 때문이겠군.

29. 윗글을 통해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 세계가 상상 세계로 통합되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지는 두 세계가 동시에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대상이 주는 인상의 강도 차이에 따라 두 세계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지각된 대상과 완벽히 일치하는 세계와 지각된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 ⑤ 분리된 두 세계는 정신 의식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으며, 결국 인과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명했다 ② ㉡: 의미한다
- ③ ㉢: 간주되어 ④ ㉣: 변화하면
- ⑤ ㉤: 피력하지만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르뎠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메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거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꿍어 넘는 토방 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장터」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 ② ㉡: 가시내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나타낸다.
- ③ ㉢: 가시내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
- ④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 ⑤ ㉤: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나타낸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는 유랑하는 삶의 고통과 이에 대응하는 모습,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 등을 그리고 있고, (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

- ① (가)의 ‘봄을 불러줄게’에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 ③ (나)의 ‘가을별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군.
- ④ (가)의 ‘눈포래’, ‘얼음길’과 (나)의 ‘산서리’, ‘물여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내는군.
- ⑤ (가)의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와 (나)의 ‘짐부리고 앉아 쉬는’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늙고 병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내시어 [A]
 을사(乙巳)년 여름에 진동영(鎭東營)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으랴
 일장검(一長劍) 비스듬히 차고 병선(兵船)에 감히 올라
 두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對馬島)를 굽어보니
 바람을 쫓아가는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한 빛일세
 선상(船上)에 거닐면서 예와 오늘을 생각하고 [B]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현원씨(軒轅氏)*를 애달파 하노라
 대양(大洋)이 넓고 아득하여 천지(天地)를 둘러 있으니
 진실로 [C] 아니면 풍파 만 리 밖의 어느 오랑캐가 옛불런가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는가
 만세천추(萬世千秋)에 끝없는 큰 폐(弊) 되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만백성의 원한 사네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秦始皇)의 탓이로다 [C]
 배 비록 있다 하나 왜적이 아니 생겼던들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에서 빈 배 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들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도적들을 남겨 두었나
 통분(痛憤)한 수치가 중국 땅에 미치도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萬里長城)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던고
 남과 같이 죽어 가니 유익한 줄을 모르겠네
 (중략)
 때때로 머리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어지러운 세상에 늙은이 눈물짓네
 우리나라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D]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왜적의 흉한 침략
 만고의 그 원한을 못 씻어 버렸거든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하 되어 있다가 [E]
 궁달(窮達)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어간들
 우국단심(憂國丹心)이야 어느 뎨들 잊겠는가 [E]
 -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

* 주사: 수군.
 * 현원씨: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전하는 전설의 인물.

(나)
 경오년(1810) 여름에 엄청난 파리떼가 생겨나 온 집 안에
 가득하더니 점점 번식하여 산과 골을 뒤덮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도 엉겨 붙고, 술집과 떡집에도 구름처럼 몰려들어 우
 례 같은 소리를 내었다. 노인들은 괴변이라 탄식하고, 소년들
 은 분을 내어 파리와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혹은 파
 리통을 설치해 잡아 죽이고, 혹은 파리약을 놓아 섬멸하려
 했다.
 나는 이를 보고 말했다.
 “아아, 이 파리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변해서 이 파리들이 되었다. 아아, 이들은 기구하게 살아난
 생명들이다. ㉠슬프게도 작년에 큰 기근을 겪었고, 겨울에

는 혹독한 추위를 겪었다. 그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가혹하게 착취까지 당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시신이
 쌓여 길에 즐비했으며, 시신을 싸서 버린 거적이 언덕을
 뒤덮었다. 수의도 관도 없는 시신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
 고, 기온이 높아지자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 시신에서 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고이고 영기더니 변하여 구더기가 되었
 다. 구더기떼는 강가의 모래알보다 만 배나 많았다. 구더기
 는 점차 날개가 돋아 파리로 변하더니 인가로 날아들었다.
 ㉡아아, 이 파리들이 어찌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재가
 아니라. 너의 생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이에
 음식을 마련해 파리들을 널리 불러 모으나니 너희들은 서
 로 기별하여 함께 와서 이 음식들을 먹어라.”
 이에 다음과 같이 파리를 조문(弔問)한다.
 파리야, 날아와 이 음식 소반에 앉아라. 수북한 흰 쌀밥에
 맛있는 국이 있단다. 술과 단술이 향기롭고, 국수와 만두도
 마련하였다. ㉢그대의 마른 목을 적시고 그대의 타는 속을
 축여라.
 (중략)
 파리야, 날아오너라. 살아 돌아오지는 마라. 그대 지각 없
 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축하하노니 그대 죽어도 재앙은 형
 제에게까지 미친다. 6월이면 조세를 독촉하며 아전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 사자의 포효처럼 산천을 흔든다. 가마솔
 도 빼앗아 가고 송아지와 돼지도 끌고 간다. 그러고도 부족
 하여 관가에 끌고 가 곤장을 치는데, 맞고 돌아오면 기진하
 여 병에 걸려 죽어 간다. 백성들은 온통 놀리고 짓밟혀 괴로
 움과 원망이 너무도 많지만 천지 사방 어디라 호소할 데 없
 구나. 백성들 모두 다 죽어 가도 슬퍼할 수도 없구나. ㉣어진
 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는 비방이나 일삼는다. 봉황은 입
 다물고 까마귀만 우짖누나.
 파리야, 날아서 북쪽으로 가거라. 북으로 천 리를 날아 궁
 쥘로 가거라. 임금님께 그대의 충정을 하소연하고 깊은 슬픔
 펼쳐 아뢰어라. 어려운 궁궐이라고 시비(是非)를 말 못하진
 마라. 해와 달처럼 환히 백성의 사정 비추어서 어진 정치 펴
 주십사 간곡히 아뢰어라. ㉤번개처럼 우레처럼 임금님 위엄
 이 떨쳐지게 해 달라고 하여라. 그러면 곡식은 풍년이 들고
 백성은 굶주리지 않으리라. 파리야, 그런 다음 남쪽으로 돌아
 오려무나.
 - 정약용, 「파리를 조문한다」 -

34. (가)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주사’로 임명되어 ‘진동영’에 내려온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B]에는 배를 만든 ‘현원씨’를 추모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C]에는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
 - ④ [D]에는 ‘한당송’에 뒤지지 않는 ‘문물’을 가졌음에도 ‘왜적’의 침략을 받아 원통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E]에는 ‘신하’로서 ‘우국단심’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열거를 통해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파리를 죽은 백성들로 인식하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의인법을 사용하여 굶주려 죽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비를 통해 관리들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비유를 통해 필자가 바라는 임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6. (가)의 [배]와 <보기>의 [빈 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츠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

- ① (가)의 '배'는 화자가 머물러 있다가 떠난 공간이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배'와 달리 <보기>의 '빈 배'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7.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습한 내용이다. (가), (나)를 감상 요소에 따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 요소	감상한 내용
현실 인식	○ (가)의 화자는 주사(舟師)로서의 충성심을, (나)의 화자는 백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군. ①
원인 분석	○ (가)의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거의 인물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군. ② ○ (나)의 화자는 기근, 전염병, 가혹한 착취 등으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군. ③
화자의 태도	○ (가)의 화자는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④ ○ (나)의 화자는 어진 정치가 펼쳐져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 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열읍에 공문을 보내 벼슬도 올려 주는지라. 여러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폐하여 외객관으로 내치니, 후궁과 벼슬아치들과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며 끝없이 슬프고 마음 아파하니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 이때 왕 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실색하여,
 “마땅히 죽으리로다.”
 하며, 주야로 하늘을 향해 빌며 말하기를,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모친은 불효자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금같이 귀하신 몸을 보존하소서. 꿈 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인생에서 죽는 일 하나만은 제왕도 마음대로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오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는 그의 원수가 아니오니 어찌 조용이 이두병의 칼에 죽겠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하며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이때 이두병이 큰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황제(平順皇帝)라 하고 연호를 새로 고쳐 건무(建武) 원년(元年)으로 삼았다.
 이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 이날 왕 부인 모자가 태자께서 유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死生)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
 하며 모자가 주야로 통곡하더라. 하루는 웅이 황혼의 명월을 보며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憤氣撐天)한지라. 울적한 기운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는 이러하더라.
 국과군망(國破君亡)*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太平)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냐.
 삼강이 불퇴하니 오륜을 고칠소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소슬히 내리는 비는
 충신원루(忠臣冤淚) 아니면 소란스럽게 구는 사람의 하소연이로다.
 슬프구나 백성들아, 오호에 한 조각배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뜰에 가득한데 오리와 기러기 몇 쌍이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 왕조의 경치와 풍물 아닌 것이 없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굵이 굵이 쌓인 근심이 갑자기 생겨나는지라. 조용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만

나서 사생을 결단하고 싶으나 힘이 모자랄뿐더러,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 할 수 없이 그저 돌아 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붓을 넣어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서 붓을 내어 경화문에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써서 이두병을 옥하는 글 몇 구를 지어 쓰고는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더라.

(중략)

이날 밤에 황제가 꿈이 몹시 흉하고 참혹하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여러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 들여 꿈속의 일을 의논할 때, 경화문을 지키던 관원이 급히 고하기를,
“밤이 지나고 나니 문밖에 없던 글이 있기에 옮겨 적어 올립니다.”
황제가 그 글을 보니,

‘송나라 황실이 쇠약하고 미미하니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도다! 만민이 불행하여 황제의 상이 나셨도다! 동궁이 장성하지 못했으니 소인이 득세하는 때로다! 만고 소인 이두병은 벼슬이 일품이라.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이 되었던 말인가? 천명이 온전하거든 네 어이 장수하리오.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진시황의 날랜 사슴 입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종의 신기한 능력으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늘*, 어이할까 저 반적아! 부귀도 좋거니와,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광대한 천지간에 용납 없는 네 죄목을 조목 조목 생각하니 한 줄의 글로도 기록하기 어렵도다.
이 글은 전조 충신 조용이 삼가 쓰노라.’
하였더라.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보고 나서 놀라며 분기등등하여 우선 경화문 관원을 잡아들여 그때에 잡지 못한 죄로 곤장을 쳐서 내치고는 크게 호령하여 조용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장안이 분분한지라. 관원들이 조용의 집을 에워싸고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고 조용 모자는 없는지라.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돌아와서 도망한 사연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께서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하여 대신을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조용 모자를 잡지 못하면 여러 신하에게 중죄를 내릴 것이니 바빠 잡아 짐의 분을 풀게 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매우 급하고 두려워하여 장안을 에워싸고, 또한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벌써 삼천 리 밖에 있는 조용을 어찌 잡으리오.

- 작자 미상, 「조용전」 -

* 국과군망: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돌아가심.
*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는 아들.
* 진시황의~주었거늘: 진시황이 죽고 초패왕 항우가 그의 용맹함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책사 범증이 있음에도 황제가 되지 못하고 결국 유방이 황제가 된 일을 말함.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조용의 안위를 걱정했다.
- ② 조용 모자는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 ③ 이두병은 송 태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큰아들을 동궁으로 봉했다.
- ④ 이두병은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⑤ 이두병은 조용이 쓴 경화문의 글을 보고 조용을 잡아들이게 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용전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낸 방각본 소설로 여러 판본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이 작품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 반역을 꾀하는 인물들은 악의 욕망을 지녀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한다.

- ①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모습에는 악의 욕망이 드러나 있군.
- ②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는 조용의 모습에는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나타나 있군.
- ③ 여러 사람들이 부른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 층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군.
- ④ 조용이 경화문에 쓴 글에는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조용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군.
- ⑤ 경화문에 글을 쓴 조용을 잡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습에서 악이 선의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4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슬픔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조용의 심리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용의 원망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④ ㉣: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음을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 이두병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편 집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돈으로 의관이라는 벼슬을 산 조 의관은 족보인 대동보를 엮는 데 돈을 쓰며 ○○당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자는 문중의 요구를 받고, 조상훈은 이 문제로 육촌인 조창훈과 다툰다.

영감도 결단코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다. 어수룩이라니 거의 후반생을 셈과 ㉠주판으로 늙은 사람이었다.

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천냥 만냥 판*으로 돌아다니거나 있는 집 사랑 구석에서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는 조가의 떨거지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이 영감의 주머니끈을 풀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족보를 앞장세우고 살고 굶고 하는 바람에 조춤조춤 쓰기 시작한 것이 삼천여 원 근 사천여 원을 쓰게 되고 보니 속으로 퐁퐁 앓는 판인데 또 ㉡○○당 할아버지를 앞세워서 오천 원 논란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천 원을 부른 사람도 그만큼 불러야 삼천 원은 우려 내려니 하는 것이요, 조 의관도 오천 원의 반절은 아무래도 또 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죽을 날이 알파하여 가니까 ×× 조씨 문중에서 자기가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이 세상에 남겨 놓고 가는 기념사업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려는 노릇이다.

그래서 요새로 부쩍 달고 치는 바람에 그러면 우선 ㉢천원 하나를 내놓을 터이니 오백 원은 산소를 꾸미는 데에 쓰고 오백 원은 묘막을 짓되 부족되는 것은 조상의 산소 근처에 있는 조씨들이 금력으로 보태든지 돈 없는 사람은 부역으로 ㉣흙 한 줌 때 한 장씩이라도 떠다가 힘으로 보태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위답*으로는 다소간 나중에 마련해 놓으라고 하였다. 조 의관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천 원 내놓고 이천 원 들인 생색은 내려니 하는 속다짐이다.

“그래야 결국 아저씨께서는 돈 천 원 하나밖에 안 내놓으신다니까 나중에 뒷감당은 우리 발로다 돌아다니며 굶어모아야 할 셈이라네. 말 내놓고 안 할 수 있나! 이래저래 뺏골만 빠지고 잘못되면 시비는 우리만 만나고…….”

창훈이는 한참 앉았다가 혼잣말처럼 이런 소리를 한다.

“장한 사업 하슈. ○○당 할아버지가 묘막 지어달라고, 산소 앞에 석물(石物)이 없어서 호젓하다고 하십니까?”

상훈이는 ‘합디까’라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겨우 ‘하십디까’라고 존대를 하였다. ○○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설픈다. 예수교인이라 하여 자기 조상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새로 모셔 온 십 몇 대조 할아버지라 하니 좀 낯설기 때문이다.

“그런 소린 아예 말게. 자네는 천주학을 하니까 이런 일에는 반대인지 모르지만 조상 없이 우리 손이 어떻게 퍼졌으며 ㉤조상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조씨도 그렇게 해서 남에 빠지지 않고 자자손손에 번창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창훈이는 못마땅한 것을 참느라고 더욱 이죽이죽 대거리를 한다.

(중략)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푹푹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묶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측들이 많으니까 이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난봉자식이 난봉 핀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을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보기는 처음이다.

[A] “그야 얼마를 쓰셨는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은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 모녀와는 공교히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 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연줄이 닿아서 경애 모녀의 코빼기도 못 보았건마는 소문을 뻔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 안 것이다. 그러나 상훈이 내외끼리 몇 번 싸움질이 있던 외에는 노영감도 이때껏 눈 감아 버린 것이요, 경애가 들어 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도 부친이 채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 좌중(稠人廣座中)*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화тім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아버님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데…….”

상훈은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지진*이란 당한 일입니다.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학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까?”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언성을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하고 섰구나. 내가 무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닢이라도 너를 남겨 줄 줄 아니! 너는 이후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여도 한 푼 없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 두어라.”

하고 좌중을 둘러다보며 말을 잇는다.

[B]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로 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테다.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 대든 하여 뒤를 깡그러뜨려 놀 것이니까 너는 인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 염상섭, 「삼대(三代)」 -

- * 천냥 만냥 판: 노름판이라는 뜻.
- * 중시조: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 * 제위답: 추수한 것을 조상의 제사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논.
- * 재하자 유구무언: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에 대해 논쟁하지 못함을 이룸.
- * 조인광 좌중: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 * 치산: 산소를 매만져서 다듬음.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장면을 교차하여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 의관이 금전적인 판단이 어설프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다.
 - ② ㉡은 조 의관이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될 원인이 된다.
 - ③ ㉢은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최대 금액이다.
 - ④ ㉣은 묘막 짓는 일에 문중 사람들이 힘으로라도 보태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을 보여준다.
 - ⑤ ㉣은 묘막 짓는 일에 불만인 상훈을 염두에 두고 창훈이 한 말이다.

43. [치산]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훈’은 이 일로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 ② ‘조 의관’은 이 일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
 - ③ ‘조가의 딸거지들’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 이 일을 제안했다.
 - ④ ‘창훈’은 이 일로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 ⑤ ‘조 의관’은 이 일로 자신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44.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상훈은 조 의관에게 장자로서 신임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 ② [A]에서 상훈은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 조 의관은 상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에서 조 의관은 [A]의 상훈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삼대」는 구한말을 대표하는 할아버지 조 의관, 개화기를 대표하는 아버지 조상훈,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손자 조덕기를 통해 1920~30년대의 생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근대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돈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봉건적 의식을 지닌 조 의관과 개화기 지식인이지만 위선적인 조상훈의 대립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강조하는 상훈의 모습에서 개화적 지식인으로서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 ② 조 의관이 신분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데 돈을 들인 것을 통해 조 의관의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③ 조 의관의 비난에 상훈이 변명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개화적 의식은 지녔지만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인물이군.
- ④ 상훈이 조 의관과 조상을 섬기는 일로 언쟁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⑤ 조 의관이 재산의 반을 상훈이 아니라 덕기에게 상속하려는 것을 통해 돈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